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취임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 개발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택지조성과 주택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사무 등을 총괄한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세계적 수준의 정주환경과 생활기반 및 글로벌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더욱 성장해 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적인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현할 수 있게 가다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바이오와 헬스, 5G와 AI, 관광·레저와 컨벤션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투자와 기업 유치, 산학연 협업 생태계 조성 관련 인재 양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추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 사업, 시타워 건립과 제3연륙교 건설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①

이원재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7월 10일 취임했다. 1986년 행정고시(30회) 출신의 이 청장은, 30여 년의 공직 기간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을 거치며 주로 국토와 주택·도시개발 분야를 담당했고, 지난해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으로 일했다. 인천시장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임명하는 임기 3년(연임 가능)의 인천경제청장은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 IFEZ

대한민국 4차 산업 성장의 중심에 IFEZ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오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주요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